

## 16-17세기 선비들의 낙동강문화(洛東江文化)와 그 의미 - 정구, 장현광, 정경세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

김종구\*

우리 선현에게 산수(山水)는 삶의 터전이자, 공부와 풍류의 공간이었다. 낙동강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소유하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강을 통해 경상좌·우도, 서울·경기까지 교류와 협력, 갈등을 일으키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의는 16-17세기에 활동한 한강 정구·여헌 장현광·우복 정경세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낙동강을 인식하며 문학으로 창작하고 있는지, 그 동이성(同異性)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화현상을 고찰했다.

정구·장현광·정경세의 낙동강 인식은 첫째, 놀이와 선유(船遊)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이들은 낙동강(洛東江) 가에서 소요를 하는 소소한 즐거움과 달밤에 뱃놀이를 즐기며 풍류를 만끽하고 있었다. 즉 공자의 기상을 함양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동인(同人)과 함께 물가에서 소요하기도 하고, 뱃놀이를 하며 달구경과 시를 창작하기도 했다. 공자와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대에서 바람을 쐬는 기상과 뱃놀이 문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대의 도학자를 추송하며 은일(隱逸)과 구도(求道)를 지향하고 있었다. 낙동강은 길재, 김굉필, 퇴계학파 등 도학자를 추송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동강가에 은일하여, 구도(求道)를 지향하며 학문과 성정 함양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의 제자 및 동

---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22..88.002>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인(同人)은 낙동강가에 집을 지어, 왕래와 교류를 하며 학문을 배우고 도학 함양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자의 기상을 함양하고, 도(道)와 덕(德)을 겸비하고자 노력했다. 낙동강가는 은일처, 도학처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낙동강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정구·장현광·정경세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구도(求道)와 풍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두 문화가 혼용되어 반복되어 나타나, 놀이와 구도의 습합이 이뤄졌다. 낙동강은 도맥이 흐른다고 생각하며 강학(講學)과 선유(船遊) 등의 문화를 형성했다. 이들은 좁게는 학단을 형성하고, 넓게는 도맥[학파]을 형성해 전승하고 있었다. 즉 당대 영남 사림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비록 지역은 달리했지만, 정구는 대구 인근에서 장현광은 구미에서 정경세는 상주의 낙동강가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학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핵심 단어: 16-17세기, 낙동강문화, 정구, 장현광, 정경세, 선유(船遊), 풍류, 은일(隱逸), 구도(求道)

## 1. 서론

16-17세기 영남의 선비들은 불안한 정국에 각자의 처신을 했다. 출사의 기회가 자유롭지 못했고, 출사를 하더라도 당대 봉당 정치로 인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선비들은 자신의 고향의 산수에서 선비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중 산과 강이 이들의 주요 생활 공간이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사회와 전쟁<sup>1)</sup>으로 인해 더욱

1)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일어난 국난은 대표적으로 기축옥사(선조 22, 1589) · 임진왜란(선조 25, 1592) · 광해군의 등극(1608) · 계축옥사(광해군 5, 1613) · 인조반정(1623) · 정묘호란(인조 5, 1627) · 병자호란(인조 14, 1636)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인물들은 이 시대 즈음에 태어나 활동하며, 혼란한 정국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특히 퇴계 사후, 그의 제자들이 이뤄낸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놀이문화 · 풍류문화, 즉 일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낙동강은 영남 지역의 강이었기에 영남인의 삶의 터전이자, 동서남북으로 문화를 교류하며 무역상과 사신 등의 교통수단 기능도 하고 있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낙동강은 더욱 중요한 의미의 강으로 작용한다. 기호학과와 영남학과, 퇴계학과와 남명학과 사이에 있었던 경쟁과 갈등<sup>2)</sup>이 그것이다. 낙동강을 통해 왜적들이 자주 침입하고,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영남의 선비들에게 심각한 공간으로도 작용했다.

우리 선현은 산수(山水)가 삶의 터전이자,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었다. 낙동강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소유하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본 논의의 정구·장현광·정경세는 퇴계, 남명 사후 영남의 학파를 이끌은 주요한 인물이다. 이들이 인식한 낙동강을 파악한다면, 16-17세기 영남 선비들의 낙동강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낙동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기고 있다. 우선 낙동강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와 총체적 관점을 살펴보자.

(가) 묘향산(妙香山)이 북쪽의 진산(鎭山)이 되어 있고 구월산(九月山)이 서쪽에 높이 솟아 있고 금강산(金剛山)이 동쪽에 빼어나고 지리산(智異山)이 남쪽에 웅장하고 태화산(太華山)이 중앙에 서리고 있으니, 이것이 곧 오악(五嶽)이며, 낙동강이 남해(南海)로 들어가고 한수(漢水)와 대동강(大同江)과 압록강(鴨綠江)이 서해로 들어가니 이것이 곧 사독(四瀆)이다.<sup>3)</sup>

(나) 황지(黃池)는 우보 서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산중의 물과 합하여

과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에 관해서는 정우락의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03-257쪽.)을 참고할 수 있다.

3) 장현광, 『여헌속집』 4, 「靑邱圖에 대한 설」, “若乃妙香之北鎭, 九月之西嶽, 金剛之東秀, 智異之南雄 太華之中盤者, 其五嶽也. 洛流之宗于南海, 漢水, 大同, 鴨綠之朝于西海者, 其四瀆也.”

서남쪽으로 흘러서 백석평 20리를 지나고 산의 바위를 뚫고서 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의 근원이 되니, 이를 천천(穿川)이라고 한다. 옛날에 제전(祭田)을 두어 홍수나 가뭄이 들었을 때 이곳에 제사 지냈다.<sup>4)</sup>

낙동강은 사독(四瀆) 중 동독(東瀆)으로 영남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이다. 낙동강을 통해 경상좌·우도를 나뉘며 교류와 협력,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영남인의 젖줄이었다. 홍수와 가뭄은 우리의 삶의 지속과 안정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16-17세기의 걸출한 유학자 역시 낙동강을 통해 삶과 학문을 영위하고 있었다.

낙동강에 관한 연구는 강안학·낙중학·낙동강문화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강안학에 대한 논의는 정우락의 「조선중기(朝鮮中期) 강안지역(江岸地域)의 문학활동(文學活動)과 그 성격(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sup>5)</sup>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류의 상주·의성

4) 허목, 『기언』 28, 「太白山記」, “黃池在廣甫西十里, 與山中之水合而西南流, 過百石坪二十里, 穿山石南流爲洛東源, 曰穿川, 前古置祭田, 水旱祀之.”(본 논의의 국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다.)

5) 본 논의는 강안학의 개념을 정립시킨 정우락의 구체적 실상과 낙동강 문화를 탐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낙동강과 강안학 및 물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선행연구가 있다. 본 논의는 아래의 선행연구에 힘입어, 그 구체적인 문화와 논의를 확장하고자 함을 밝혀둔다. 즉 낙동강 강안에서 일어난, 당대 선비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과 교류 및 그 문화를 탐색, 분석하고자 한다.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03-257쪽.

정우락, 「강안학, 하나의 영남학을 위하여」, 경북대신문, 2008년 4월 7일자.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 52, 한국학문화학회, 2014, 173-213쪽.

정우락, 「남명 조식의 ‘물’ 인식과 인문정신」, 『영남학』 2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165-202쪽.

정우락, 「동계 조형도 시에 나타난 ‘물’에 대하여」,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145-184쪽.

정우락, 「물의 철학, 물의 문화」, 『향토와 문화: 물』 74, 대구은행, 2015.

정우락, 「「봉산욕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

정우락, 「이황과 조식의 문학적 상상력, 그 동이의 문제」, 『한국사상과문화』 40, 한국사

· 구미·김천·칠곡·성주·대구·고령·합천지역의 대구권은 낙중학 연구와 이론을 연계할 수 있다. 상류는 안동권, 하류는 부산권이다. 그 외 성주의 강안학 연구<sup>6)</sup>와 강안학 시론에 관한 연구<sup>7)</sup>가 있다. 최근 『낙동강과 문화어문학』<sup>8)</sup>의 총서가 의미가 있다. 그중 김소연<sup>9)</sup>의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를 주목할 수 있다. 이 논의는 간송 조임도<sup>10)</sup>가 낙동강과 금강이 합류 지점에 있는 합강정사를 중심으로 그

상문화학회, 2007, 7-44쪽.

정우락, 「정몽주 시에 나타난 공간 상상력-물 이미지와 관련하여」, 『포은학연구』 16, 포은학회, 2015, 189-225쪽.

정우락, 「주자 무이구곡의 한국적 전개와 구곡원림의 인문학적 의미」,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구곡문화』, 울산대곡박물관, 2010.

정우락, 「한국문학에 나타난 물 이미지의 이항대립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4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1, 69-114쪽.

정우락, 「형제 이직의 한시에 나타난 '물'에 관한 상상력」, 『동양한문학연구』 39, 동양한문학회, 2014, 317-352쪽.

정우락, 『모순의 힘: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6) 정우락,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45-78쪽.

7)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39-94쪽.

정우락, 「한국한문학의 지역 간 교섭과 문화의 역동적 생성: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韓國漢文學研究』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8) 이 총서는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정우락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에서 기획한 낙동강 주변의 문화어문학 탐구이다. 강안학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문화 영역의 확장과 주변의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즉 논제의 키워드만 제시하면, 상주, 영남루, 관수루, 현대시의 수계 지역, 경북 하위 방언 관련, 퇴계 뱃놀이, 용화동법, 여성의 낙동강 선유, 영남 구곡원림, 대구 구곡, 하외구곡, 망우정, 장혁주 초기 소설의 낙동강 표상 등이 있다. 이 책은 낙동강을 문화로 읽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직 낙동강에 대한 문화사 기술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미 제시한 논의들은 총론에 불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점과 인물 시대를 아우르며,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의는 그 출발점에서 퇴계, 남명 사후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과 시대, 낙동강의 상류 및 중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9) 김소연,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4, 한국문학회, 2020, 107-140쪽 참조.

10) 본 논의는 이미 낙동강 하류 지점인 김소연의 합강정사 논의와 김중구의 망우정(「망우당 광재우의 한시를 통해 본 閒酬酬의 情趣와 그 의미」, 『영남학』 7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72-101쪽 참조)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보조자료로 삼고, 낙동

강에서 일어난 문화적 측면을 논의했다.

철학 및 사상과 관련된 낙중학에 관한 논의는 홍원식의 「영남 유학과 ‘낙중학」<sup>11)</sup>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는 낙동강의 중류 일대가 유교조선을 만든, 정몽주·길재·정구·장현광·이진상·허전·장복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려학과 및 한강학과·정구·장현광·서사원의 연구<sup>12)</sup>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낙중학과 관련된 소논문과 총서<sup>13)</sup>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16-17세기에 활동한 한강 정구(1543-1620)·여헌 장현광(1554-1637)·우복 정경세(1563-1633)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낙동강을 인식하며 문학으로 창작하고 있는지, 그 동이성(同異性)

강 상류 지점과 중류 지점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실상을 집중 조명한 논의가 많지 않기에, 본 논의는 그 출발점 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많이 나온다면, 낙동강 문화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심진강·압록강 등 기타 강문화와의 그 동이성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1) 홍원식, 「영남 유학과 ‘낙중학」,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7-29쪽.

12) 관련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홍원식 외,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嶺南學』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41-98쪽.

추제협, 「‘한려학과’와 ‘여헌학」, 『한국학논집』 5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59-88쪽.

홍원식 외,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과」,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8.

홍원식 외,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 조선 중기의 ‘洛中學」,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郭再謙·徐思遠·孫處訥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231-271쪽.

13) 본 논의는 이러한 철학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문학을 통해 낙동강을 읽어 내면서, 그곳에 담긴 문화사적인 의미를 유추하고자 한다. 즉 낙동강문화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총체적으로 ‘낙동강’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해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본 논의에서 추출한 것 이외에는 작품이 거의 없다. 낙동강 인근이 창작 공간, 배경 등은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표제로 제시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즉, 선현들이 낙동강을 직접 사용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추후 논의에서 그 배경과 창작 공간이 된 낙동강을 살펴, 개개인의 문집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의는 시론적인 논의임을 밝힌다.

을 중심으로 문화론적<sup>14)</sup>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당대에 학단을 형성해 영남을 이끌어 갔던 대표적 유학자들을 통해 16-17세기 영남 선비들의 낙동강문화를 고찰하고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낙동강문화의 전망과 과제를 제언할 수 있다.

## 2. 낙동강 인식과 문학 양상

일찍이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대저 영남의 큰물은 낙동강인데, 사방의 크고 작은 하천이 일제히 모여들어 물 한 점도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이 없다. 그 물이 이와 같으면 그 산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인심이 한데 뭉치어 부름이 있으면 반드시 화답하고, 일을 당하면 힘을 합하는 이치이다. 게다가 유현(儒賢)이 대대로 일어나 스스로 성교(聲敎)를 이루어서 고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sup>15)</sup>라고 하면서, 영남의 선현을 칭송한 바 있다.

본 논의에서 관심을 가지는 낙동강 중 그 종류는 정몽주·길재·김종직·김평필·정구·장현광·이진상 등 도학과 유학을 주도한 유현<sup>16)</sup>들이 많았다. 게다가 이익은 「영남오륜」에서, 퇴계·남명·서애·한강·우복·여

14) 낙동강과 관련된 문화적 인소와 그 통태를 파악하며, 융합적 측면에서 낙동강을 바라보고자 한다. 문화어문학에 관한 연구 방법론 제시(정우락·백두현,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참조)와 그 구체적 후속 연구는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15) 이익, 『星湖僿說』 13, 「嶺南五倫」, “凡嶺南之大水曰, 洛東, 四圍羣川, 鉅流微涔一齊合同, 無一點外泄, 其水如此, 其山可知, 此為衆情萃聚有倡必和, 當事則併力, 加之儒賢代興, 自為聲敎不可以嬗變也.”

16) 홍원식 외,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헌을 언급하며 영남에서 오류이 전개되는 점을 칭송하고 있었다. 본 논의는 16-17세기에 활동한 정구·장현광·정경세의 문학 작품을 통해 낙동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문화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현재, 한국고전종합 DB에서 낙동강<sup>17)</sup>으로 검색된 부분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1〉 정구의 낙동강 인식과 문학 양상

순번	작품명	갈래 및 관련 내용	비고[산수(山水), 동인(同人), 기타 등]
1	박군신(朴君信) 정변(廷璠)의 죽음을 애도한 만사	만사, 풍류	박정변, 야천, 학암정사 부래정사
2	서행보(徐行甫) 사원(思遠)에게 답한 계묘년	서, 풍류[욕기(浴沂), 무우대]	서사원, 청야 즐거움
3	서행보에게 보냄	서, 강학처	서사원, 문하(제자)
4	성중진(成仲珍) 경침(景琛)에게 답함	서, 신경처, 소요처	성경침, 문인
5	금오서원(金烏書院) 원생들과의 문답	서, 문답	서원지,
6	『함주지(咸州志)』 서문	서, 송별연, 풍류	후한때의 명사인 이응과 곽태 고사
7	한훤당 김 선생 사당에 고한 봉안문	축문, 낙동강 정기	대니산, 한훤당 김평필
8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 선생을 봉안하는 글	축문, 은거지	대니산, 도동서원
9	존도사(尊道祠)를 증건하고 위판을 봉안할 때 먼저 그 사유를 고한 글	축문, 성원 유직, 사당, 이황 위판	여강서원, 1576(선조 9)
10	박대암(朴大菴) 성(桴)에 대한 제문 정미년(1607)	제문, 풍류, 동인지락,	스승, 동인, 제자, 박성
11	낙동강 뱃놀이 '만경창파욕모천(萬頃蒼波欲暮天)'의 시구로 운자를 나누어 '파(波)' 자를 얻었다.	시, 뱃놀이, 이계육, 박성	46세, 1588(선조 21) 7월, 함안군수
12	안의지(安宜之) 극가(克家)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 교유(만남의 장소)	안극가, 삼가현감
13	박군신(朴君信) 정변(廷璠)에 대한 제문	제문, 풍류	뱃놀이
14	정자명(鄭子明) 사성(士誠)에게 올린 제문	제문, 경계(서울, 낙동강)	이황 문인, 2년 연하, 1607년 졸

17) 본 논의의 텍스트는 한국고전종합 DB의 『한강집』, 『여헌집』, 『우복집』의 국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을 하였다. 그 외 문집 인용 역시 한국고전종합 DB를 참조했다. 여기서 洛江, 洛水, 洛東 등은 낙동강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낙동강, 즉 洛江[낙동강]만을 다루기로 한다. 표제에 洛江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용으로 짐작 가능한 부분은 추후 논의에서 구체적, 상세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15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가선대부(嘉善大夫) ... 김공(金公) 행장	행장, 공부처, 임란 시 쟁터 및 경계	김성일(1587), 석문정사
16	정약포(鄭藥圃) 탁(琢)에게 보냄	서, 경상좌, 우도의 경계	정탁, 61세 1603년(선조 36) 겨울
17	황명(皇明) ... 한강(寒岡) 정선생 행장 [장현광]	행장, 소미성과 낙동강의 정기와 진액을 타고남	성현의 도 실천
18	예관을 보내 치제할 때의 제문 인조조 [이준]	제문, 소미성, 낙동강(앞에 여헌 차용)	소미성 정기, 낙동강 진액 성현의 도
19	사립제문 [장현광]	제문, 육기, 무우대 풍류	공자, 증점의 풍류
20	또 [신식]	제문, 낙동강 정기	가야산 정기
21	또 [이수광]	만장, 도학처	만년
22	논시사(論時事) [손처눌 등]	유편, 제자의 선유공간, 강학처, 유람공간	도동, 가야사
23	잡기 [이서 등]	유편, 노곡노인	사양정사

위의 표는 정구의 문집에 낙동강으로 기록된 작품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의 문집에 나타난 낙동강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품 갈래별로 살펴보면 제문 6편, 시 4편, 서 6편, 축문 3편, 행장, 유편, 만장 등이다. 정구와 선비를 기리거나, 낙동강에서 창작된 내용, 한훤당을 추모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은 풍류의 공간이다. 그 풍류는 공자와 증점의 기상을 함의하는 것이다. 즉, 육기와 무우대의 풍류이다. 그리고 정구가 소요를 하거나 뱃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낙동강은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구의 제자의 뱃놀이와 유람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낙동강은 은일처와 도학처로 작용하고 있다. 정구는 은일을 하여 도학을 함양하며 성현의 학문을 하고자 했다. 한훤당과 관련된 글에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정구 스스로 노곡노인이 되어 만년의 제자 육성과 학문 탐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현의 도(道)를 실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경상좌·우도의 경계이자, 임란 시에는 낙동강이 쟁터임을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정구가 낙동강의 정기를 타고난 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미성, 가야산의 정기 또한 정구

를 낳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낙동강의 공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 2〉 장현광의 낙동강 인식과 문학 양상

순번	작품명	갈래 및 관련 내용	비고[산수(山水), 동인(同人), 기타 등]
1	금수굴에 대한 고통시 세 편	시, 정확한 고증	금오산, 월파정
2	동강 김선생에 대한 만장(挽章)	만장, 가야산, 낙동강 정기	성주
3	부지암정사에 대한 기문	기, 이수, 낙수, 은일처	수수(洙水), 사수(泗水), 야은(冶隱)
4	야은선생문집 발문	발, 백이·숙제	지주중류(砥柱中流), 도맥
5	오산서원의 사우(祠宇)를 증진한 상량문	상량문, 낙동강, 정기	선산, 길재 충절
6	오산서원을 증진하고 봉안할 때의 축문	축문, 금오산	절의, 낙동강, 도의
7	한강 정선생에 대한 제문	제문, 옥기, 풍류	부지암재
8	세마 정군섭에 대한 제문	제문	부지암재, 배로 왕래
9	노생 경입에 대한 제문	제문, 도학지교, 왕래	부지암재, 배로 왕래
10	한훤당 김선생의 신도비명 병서	비명, 도학 함양·강학처	낙동강이 산을 감음
11	처사 장군의 묘갈명	묘갈, 오산서원	낙동강, 선영
12	한강 정선생 행장	행장, 소미성, 낙동강 정기	
13	대암 박공의 행장	행장, 임란 경계	김성일, 전쟁
14	의소(擬疏)	소, 오악과 사독	낙동강 동독
15	권강재, 손길보, 정여섭, 정군섭에게 줌	서, 서재	낙동강 선경
16	농암 김 선생에 대한 제문	제문, 농암 고택,	낙동강 가 월암
17	본교를 중수한 설	잡저, 인동부 향교	낙동강, 금오산
18	인의방에 대한 설	잡저, 부지암	위치, 선경
19	마을의 이름에 대한 설	잡저, 지역에	금오산, 낙동강
20	청구도(靑邱圖)에 대한 설	잡저, 사독, 고증	낙동강, 남해
21	마을 앞을 가리는 숲[차수(遮蔽)]을 다시 세울 것을 의논한 글	잡저, 풍수지리	천성산, 금오산, 낙동강 띠처럼
22	배문록-문인 신열도	배문록, 공자의 기상	옥기 풍류
23	추정록-아들 응일	추정록, 학문 풍류 공간	문도, 부지암
24	정종조 사제문 정종이 친히 지으신 것이다.	제문, 학문 지속성	서원, 영원
25	사람의 제문-문인 신흥망	제문, 기상	낙동강 금오산
26	사람의 제문-김효가	제문, 기상, 유포	낙동강 금오산
27	사람의 제문-문인 김광계	제문, 은일, 학문 탐구	부지암

위의 표는 장현광의 문집에 낙동강으로 기록된 작품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의 문집에 나타난 낙동강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품 갈래별로 살펴보면, 제문·잡저·시·만장·기·발·상량문·축문·비명·묘갈·행장·소·서·배문록·추정록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강·한훤당·한강·농암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한다.

다음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장현광 역시 낙동강은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풍류도 공자와 증점의 기상이다. 육기와 무우대의 풍류는 정구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나타난다. 특히 부지암정사를 사이에 두고 뱃놀이를 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있었다. 장현광은 낙동강이 동인과 함께 거주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었다.

또한, 낙동강은 장현광 역시 은일처와 도학처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은 부지암정사이다. 그는 성리학의 연원을 낙동강과 비유를 하고 있으며, 야은 길재를 통해 구체화 시키고 있다. 장현광은 한훤당을 언급하며, 은일과 도학 함양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금오산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수 지리과 지역에 대한 고증을 정확히 하고 있다. 금수굴·인동부 향교·마을·부지암정사 등 정확한 풍수에 대한 설과 아름다운 선경을 표현하고 있다. 장현광은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타 낙동강은 임란 때의 경계 지역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표 3〉 정경세의 낙동강 인식과 문학 양상

순번	작품명	갈래 및 관련 내용	비고[산수(山水), 동인(同人), 기타 등]
1	봄날에 고향으로 돌아가길 생각하다.	시, 고향	낙동강, 상주
2	김복사 상용에게 올린 정문	정문, 회합, 서원 설립	1605(선조 38)
3	유방백 영순에게 올린 정문	정문, 장수유식 공간	본주 유생
4	이한을 덕형에게 보낸 편지	서, 사액 청	도남서원
5	도남서원을 건립하기 위해 보낸 통문	통문, 서원의 적합지	1605(선조 38)

6	김초유사 성일에게 올리는 계	계(啓), 군사 요청지, 상주	1592(선조 25)
7	도남서원 상량문	상량문, 도맥	1606(선조 39)
8	병산서원에 서애선생을 봉안하는 제문	제문, 낙동강 정기	화산, 1614(광해군 6)
9	소재 선생을 오현묘에 종향하는 제문	제문, 도남서원 제향	소재 노수신
10	유명…김공성일의 신도비명 병서	비명, 전쟁, 정사(재실)	청성산 석문정사
11	쌍절비명 병서	비명, 여성, 절의	유인 한씨, 정씨
12	김감사 우평에 대한 만사	만사, 소요처, 풍류공간	낙동강 가 정자
13	고취명 응척에 대한 만사	만사, 귀거래처	낙동강, 뱃놀이
14	연보	연보, 정사, 서원 터	봉양 산수유담
15	언행록	언행록, 사우처	도남서원
16	증(贈)…정공의 묘지명[이준]	묘지명, 낙동강 기운	상주 도남서원
17	증…우복 정선생의 묘표[권유]	묘표, 도맥, 서원건립	우복산, 도맥 전승
18	유명…정선생의 행장[송준길]	행장, 도통의 정맥 전승	오현 합사
19	제문[이전]	제문, 은자의 귀의처	경사, 송죽 은일
20	제문[이준]	제문, 이준, 은일처	분수, 검호 배 왕래
21	또[문인 류진]	제문, 도맥의 연속성	낙동강 비유, 연속성
22	또[문인 이원규·이광규]	제문, 독락원	은일
23	또[김기·김기·김보·김승 등]	제문, 산수에 비유	선경
24	또[문하생 강교년]	제문, 은일처	낙동강 가, 우복산
25	또[이준]	제문, 낙동강 정기	산수, 희생(希聖)
26	또[김세렴]	제문, 풍류처, 놀이 공간	상산
27	또[오숙]	제문, 은일처, 은일지사	낙동강 가, 상안
28	또[이원규]	제문, 은일, 육기 풍류	도학 함양

위의 표는 정경세의 문집에 낙동강으로 기록된 작품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의 문집에 나타난 낙동강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품 갈래별로 살펴보면, 제문, 시, 정문, 서, 통문, 계, 상량문, 비명, 만사, 연보, 언행록, 묘지명, 묘표, 행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문과 관련된 것이 많아, 정경세의 정확한 낙동강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경세 역시 낙동강을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풍류와 놀이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경세는 아름다운 선경을 소요를 하며, 낚시질을 하기도 하고, 홀로 산수를 즐기기도

한다. 상산, 우복산 인근의 낙동강을 노닐며, 분수·검호가에서 뱃놀이도 즐기고 있었다.

또한, 낙동강은 정경세에게도 역시 은일처와 도학처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고향에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하고 있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잊고, 강호의 은자가 되기도 했다. 특히 도남서원 건립에 많은 노력을 가했으며, 낙동강 가의 도남서원은 장수유식하는 공간이자, 오현을 합사하여 도맥이 흐르도록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낙동강에서 절의를 지킨 여성에 관심을 가졌고,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상주 인근 낙동강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설파하며, 전쟁뿐만 아니라 서울 문화와 지방 문화를 잘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낙동강이 있어서 주장할 수 있는 논지인 것이다.

정구, 장현광, 정경세는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낙동강<sup>18)</sup>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놀이와 선유(船遊)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낙동강 가에서 소요를 하는 즐거움과 달밤에 뱃놀이를 즐기며 풍류를 만끽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전대의 도학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낙동강은 길재, 김굉필, 퇴계학과 등 도학자를 추송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에 은일하여, 이들 역시 구도(求道)를 지향하며 학문과 성정 함양에 힘을 쏟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 낙동강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18) 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도맥이 흐른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하다. 예컨대 한강과 섬진강의 경우에는 놀이와 풍류, 은일 공간으로 작용하지만, 구도를 지향하는 경향은 낙동강에 비해 소략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16-17세기 선비들의 낙동강문화

#### 3.1. 선유(船遊) 및 풍류 문화

선유(船遊), 뱃놀이는 소동파의 적벽선유(赤壁船遊)를 통해,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그 문화를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의 선현들은 나름 자기화하여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낙동강 일대에서 일어난 선유(船遊)와 그 기록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낙동강의 수려한 아름다움과 그 물길이 풍류문화를 양상하기에 충분했다. 정구, 장현광, 정경세가 노닌 낙동강의 지점이 주변의 다른 강이 합류하거나, 아름다운 절벽과 산들이 공존했기에 선유문화(船遊文化)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차적으로 그 문화를 살펴보자.

(가) 인생살이 평생에 무슨 일이 으뜸인고	平生何事最爲多
오늘 우리 뱃놀이도 노래할 만하여라	今日船遊亦可歌
좋은 벗 마침 만나 술 함께 취했는데	邂逅良朋仍共醉
물속 잠긴 석양빛 너른 물결 비추네	斜陽倒影照平波 <sup>19)</sup>

(나) 내가 군수직을 그만두고 돌아온 때는 마침 무자년(1588, 선조21) 중원일(7월 15일)이었는데 낙강(洛江)에 배를 띄워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왔다. 하늘이 높고 물은 맑은데 단풍나무와 국화가 강기슭에 널려 있고 하얀 달이 빛을 뿌려 흥취가 진진하였다. 나는 고을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평소에 상종하던 많은 사우들이 강가에 나와서 작별하였는

19) 정구, 『한강집 속집』 1, 「洛江 뱃놀이 ‘萬頃蒼波欲暮天’의 시구로 운자를 나누어 ‘波’ 자를 얻었다.」(이미 밝혔듯이, 『한강집』은 한국고전종합 DB의 국역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했다. 그리고 『여헌집』, 『우복집』 등 기타 문집 역시 한국고전종합 DB의 국역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했다. 이하 생략.)

데,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짓기도 하고 혹은 노래를 불러 석별의 정을 드러 내기도 하였다. 또 지리산 구경길에 나선 이계옥과 박덕응을 만났는데, 이들은 산으로 놀러가느라 그 행색이 나의 모습과는 서로 달랐지만 외적인 사물을 잊고 산천에 마음을 부쳐 그 속에서의 낙을 즐기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루종일 배를 함께 타고 이곽이 남긴 기풍을 상상하였으니, 이 일이 후일에는 반드시 『함주지』의 고사가 안 되지는 앓을 것이다.<sup>20)</sup>

위의 시 (가)는 정구의 「낙동강 뱃놀이 ‘만경창과옥모천(萬頃蒼波欲暮天)’의 시구로 운자를 나누어 ‘파(波)’ 자를 얻었다.」이다. 정구가 46세, 1588년(선조 21)에 지은 것이다.<sup>21)</sup> 그는 함안군수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때 지리산을 유람하러 가던, 벗인 이계옥과 박성을 만나 낙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러한 사실이 (나)의 『『함주지』 서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구는 전국에 부임하는 곳마다 읍지를 만들며, 그 고장의 산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는 고향인 성주 및 가야산 일대에서든 항상 물을 가까이하며, 천리를 말하고 있었다. 무흘정사와 대구 인근의 여러 정사에서든 그러한 경향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 시는 당대의 정국, 업무를 벗어나 자연에 합일하고자 한 성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를 지은 당대 정구는 함안군수 직을 두 번이나 거절하며 사양했지만, 군수 시절 함안의 척박한 토지와 순후하지 못한 인심을 제쳐두고, 군

20) 정구, 『한강집』 10, 『『咸州志』 서문』, “余歸適在戊子中元之日, 泛舟東洛, 泝流而來, 天高水清, 楓菊滿岸, 素月揚輝, 思致渺然, 不許郡人之相送, 而平日相從士友, 猶多來別於江上, 把酒賦詩, 或詠歌以道其懷, 又值李季郁, 朴德凝頭流之行, 尋山問路, 行色自異, 而其忘形寓懷, 樂其所以爲樂, 則不可謂不同也. 盡日同舟, 共與追想乎李郭之遺風, 此事他時亦未必不爲咸州志之故事矣.”

21) 1588년 정구 46세 8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온 기록이 「연보」에 보인다. 고을 사람들은 비석을 세워 공덕을 기리며, “侯 오십 어이 저리 더디셨으며, 후 가십 어이 이리 이르단 말가. 가뭇 끝 구름 일어 단비 뿌리고, 맑고 밝은 정사는 얼음이요 달빛. 끼치신 은택 받은 고을 백성들, 가슴속 길이길이 간직하리라.”[侯來何遲, 侯去何疾, 沛雲甘雨, 清水皓月, 民受其賜, 永懷無射.]라고 한 기록이 있다.(이상 정구, 『한강집』, 『한강연보』 1을 참조하여 기술.)

수직을 잘 수행했다. 특히 현존하는 읍지 중 가장 오래된 『함주지』를 만들었다. 읍지편찬은 이여선·박제인·이정·오운 등이 함께했다. 이 읍지는 후대의 읍지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정구는 퇴계와 남명의 제자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미 당대 저명한 학자이었다. 『함주지』처럼, 부임해 가는 곳마다 읍지를 만들며 국토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그는 이 시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류를 뱃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뱃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산수에 대한 낭만적 서정과 좋은 벗과 술이 있으니, 인생의 최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감흥은 (나)의 『함주지』 서문에 밝혀, 오랜 추억으로 남기고 후인들의 풍류에 길잡이가 되게끔 했다. 이어서 정구와 동인의 문화는 서사원, 장현광 23명<sup>22)</sup> 등의 문인에게 전승된다. 이들은 1601년 3월 23일에 뱃놀이의 풍류를 즐긴다. 이들은 금호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시회, 「금호동주영(琴湖同舟詠)」을 열었던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가) 배 한 척이 새로 만들어진 이때 장마가 끝나고 못물이 맑아졌으니, 형은 아마도 낙동강을 오르내리며 관동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 깊은 이 몸은 그 사이에 스스로 끼어 함께 그 청아한 즐거움을 누릴 길이 없으므로 아쉬움만 간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옥기도와 무이산도를 얻어 내 몸이 마치 무우대 아래에 들어가 있고 주자의 무이도가 부르는 소리를 귀로 직접 듣는 것만 같으니, 이 또한 모두 우리 존형께서 준 선물입니다.<sup>23)</sup>

22) 23인은 다음과 같다. 徐思遠, 呂大老, 張顯光, 李天培, 郭大德, 李奎文, 宋後昌, 張乃範, 鄭四震, 李宗文, 鄭鏞, 徐思進, 都聖俞, 鄭鏞, 鄭鍾, 都汝俞, 徐恒, 鄭鏗, 鄭銑, 徐思選, 李興雨, 朴曾孝, 金克銘 등이다.(이에 관해서는 정우락의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역락, 2022)을 참조하여 기술함.

23) 정구, 『한강집』 3, 「徐行甫 思遠에게 답함 계묘년」, “新艇初成, 潦盡潭清, 竊想泛洛沿洄, 冠童共樂 病癯之身, 無由自致於其間, 得共清歡, 第勤瞻邇, 奈何奈何. 今得浴沂武夷之圖, 宛然身入舞雩之下, 親聆權歌之聲, 亦無非吾賢兄之賜.”



(나) 매양 절하고 뵈을 때면	每於拜接之時
반드시 부지암재의 조용하고 편안함을 언급하시며	語必及於不知巖齋之靜謐
말씀하기를 내 병이 다소 편안해지고	而曰吾待得此病少安
시절이 다소 평화로워지며	詩節稍平
봄에 흐르는 물이 다소 불어나거나	方春流微漲
혹 가을에 물결이 깨끗해지거든	或秋波澄滢
외객들을 번거롭게 동원하지 않고	卽不煩外客
이 사이의 관동 육칠 명을 데리고	攜此間冠童六七
조그마한 배를 금호강(琴湖江)에서 출발시켜	發片舟於琴灘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밧줄을 이끌고	泝洛江而引絙
부지암 언덕에 배를 매어 놓은 다음	止繫於不知巖畔
빈 집에 앉아 증점의 비파를 울리겠다 하였으며	坐虛堂而鳴點瑟 <sup>24)</sup>

(가)는 정구가 62세 때인 1604년(선조37)에 문하 서사원에게 보낸 편지, 「서행보 사원에게 답함 계묘년」이다. (나)는 장현광이 정구의 제문을 쓴, 「한강 정선생에 대한 제문」이다. (가)와 (나)를 통해 정구의 이상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정구는 서사원에게 공자와 증점의 기상과 풍류를 향유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즉 육기의 고사를 따르 고자 한 것이다.

당대 선비들의 기수와 무우대는 상상의 공간이다. 하지만 정구는 그림을 통해 공자와 제자가 노닌 풍류를 상상하게 되며, 그들 또한 따르고자 했다. 또 주자학을 이어받은 정구는 무이산도를 보며 주자의 무이도가 노 랫소리를 상상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무흘구곡, 사양정사, 사창서 당 등 정구가 경영한 구곡, 서당, 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현광이 바라본 정구는 앞서 언급한 공자와 증점의 풍류를 이어나가는 정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구가 고요하고 아름다운 산수의 여러 곳에서 생활했듯

24) 장현광, 『여현집』 11, 「寒岡 鄭先生에 대한 제문」

이, 낙동강가에 있던 장현광의 부지암재를 그리워했던 것이다. 장현광은 정구를 ‘소미성이 정기를 내리고, 맑은 낙동강이 진액을 모았도다’<sup>25)</sup>라고 하며, 낙동강의 정기를 타고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가) 이곳에서 건축하고 있는 작은 집은 어제 이미 개와(蓋瓦)를 이었소. 이 곳은 밝으면서도 궁벽하고 넓으면서도 그윽하며 강이 흐르면서도 산이 솟아 있고 조용하면서도 탁 트였으니, 보는 자들이 모두 낙동강가의 제일 좋은 구역이라고들 말하오.<sup>26)</sup>

(나) 지방 사람들이 선생을 위하여 작은 서재를 건축하였는데 위치가 양지바른 곳이어서 겨울철에도 항상 따뜻하였으며, 서재의 서쪽에는 대가 있었는데 소나무와 대나무, 회화나무와 버드나무가 두르고 있어서 비록 무더운 여름철이라도 서늘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였다.

선생은 때로 이곳에 고요히 머무시어 혹은 열흘이 지나기도 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하였는바, 언제나 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에 날이 개면 관동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노닐었으며, 혹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돌아오시니, 기수에서 목욕하는 기상과 방불한 듯하였다.<sup>27)</sup>

(다) 1: 선생께서 일찍이 여현과 망우당, 광서, 간송당 등과 함께 낙동강의 용화산에서 함께 뱃놀이 하였다.<sup>28)</sup>

(다) 2: 정미년(1607) 봄에 한강 정선생과 장여현, 광망우, 이외재 제현이 용화후산 아래에서 뱃놀이를 할 때 공이 따라갔는데, 『용화동범록(龍華

25) 장현광, 『여현집』 13, 「황명 조선국 고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세자보양관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寒岡 鄭先生 行狀」, “原夫小微降精, 清洛鍾液.”

26) 장현광, 『여현숙집』 2, 「권강재, 손길보, 정여섭, 정군섭에게 줌」, “此中所構小舍, 昨已蓋瓦, 其爲地也. 敞而僻, 寬而幽, 江而山, 寂而曠, 見之者皆以爲洛濱第一區.”

27) 장현광, 『여현숙집』 9, 「拜門錄-문인 申悅道」, “鄉人爲先生構小齋, 厥位面陽, 冬月恒暖, 齋西有臺, 環以松竹槐柳, 雖盛夏, 涼氣逼人, 先生有時靜棲, 或經旬月, 每春暖夏晴, 攜冠童, 臨流消遙, 或駕舟沿沂, 觸詠而歸, 恍然有浴沂氣象.”

28) 이상경, 『沂洛編芳』, 「沂洛編芳序」, “先生, 嘗與旅軒忘憂匡西澗松堂諸公, 同泛於龍華洛水之上.”

同泛錄)』이전해지고 있다.<sup>29)</sup>

장현광은 부지암을 1610년(광해군 2)에 완성하고 기문을 남기고 있다. 부지암은 바위, 사방 모두 선경, 뱃놀이하기 좋은 곳, 먼 산악과 숲, 흰 모래, 구름, 새와 물고기, 밝은 달이 비추는 밤<sup>30)</sup> 등 아름다운 산수와 광경을 자랑한다. (가)는 부지암이 완성되기 전, 개와를 이은 장면이다. 장현광은 권강재, 손길보, 정여섭, 정군섭에게 편지를 보내 왕립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인동, 성주 등을 함께 유람하자고 청하고 있다.

장현광은 훗날 부지암에서 배를 띄워 놀며,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없으니, 이 어느 세계인가 인간 세상 초월하였네, 세상 사이의 수많은 소식들, 구름 너머 한 기러기 스스로 한가로워라.”<sup>31)</sup>라고 읊기도 했다. 부지암에서 행한 풍류는 (나)의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617년 문인 신열도 형제는 척숙인 최현과 함께 스승 장현광을 뵈고, 스승과 부지암에 가서 이틀 동안 머물며 모셨다. 이때 장현광이 오연시 절구를 짓고 화답을 하기도 했다.

신열도가 기억하는 스승 장현광의 형상은 부지암에 오래 기거하며, 주변의 산수에서 소요하는 모습이다. 특히 봄과 여름, 좋은 날씨에는 관동을 데리고 물가에 노닐며,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오르며 시를 읊조린다는 것이다. 바로 공자와 증점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대에서 바람을 쐬는 기상이다. 즉 공자와 그 제자의 풍류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장현광은 부귀공명에 뜻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며 제자 및 동류들과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29) 이현일, 『葛庵集 별집』 6, 「工曹佐郎贈司憲府持平澗松趙公行狀」, “丁未春, 寒岡鄭先生與張旅軒, 郭忘憂, 李畏齋諸賢, 泛舟龍華山下, 時公實從之, 有龍華同泛錄行于世.”

30) 장현광의 「不知巖精舍에 대한 기문」(『여헌집』 9)에 부지암 주변 산수의 정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참조바람.

31) 장현광, 『여헌속집』 1, 「不知巖에 배를 띄우고 놀다」, “上有天下無地, 是何界超世間, 世間幾般消息, 雲外一鴻自閒.”

(다)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정구는 안동부사로 부임하기 직전인 64세(1607) 1월 28일에 객재우·장현광·박충후 등과 함께 용화산 아래에서 뱃놀이<sup>32)</sup>를 하고 있었다. 이는 이상정과 이현일의 기록과 조임도의 기록으로 부각되며, 이후 문화가 형성된다. 조임도<sup>33)</sup>는 정구를 배알하고 함께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이상정은 정구의 뱃놀이가 퇴계에게서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이현일, 장현광의 후손 장복추 역시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sup>34)</sup>

(가) 봉양(鳳陽)의 강과 산을 탐방하였다. 봉양은 주에서 동남쪽으로 40리가량 되는 곳의 낙동강가에 있는데, 강과 산의 경치가 아주 좋았으므로 선생이 사랑하여 그곳에다가 별장을 짓고는 항상 오갔는데, 정사를 짓고자 하였으나 끝내 짓지 못하였다.<sup>35)</sup>

(나) 어찌리오 대음 아는 자 없는 데야	何大音之寡譜
참소꾼들 돌아가며 헐뜯었다네	遭讒口之交詆
더러운 물 들지 않은 몸을 거두어	乃收無渥之身
낙동강가 돌아와서 누워 지냈네	高臥有洛之渚 <sup>36)</sup>

(다) 둘이 함께 전원으로 돌아온 뒤엔	勉以同歸
서로 간에 오가면서 축과하였지	追和軸藹

32) 『龍華山下同泛錄』에 기록된 이는, 鄭述, 郭再祐, 張顯光, 朴忠後, 李佺, 成景琛, 辛礎, 趙植, 李道由, 朴震英, 李明愨, 李明念, 辛膺, 李明愨, 李明念, 安旻, 李瀟, 盧克弘, 辛邦楫, 趙瑯, 李厚慶, 羅翼南, 李道孜, 俞諧, 李明憲, 李時稔, 郭澹, 李道一, 李蘭貴, 柳武龍, 趙任道, 李道輔, 李澐, 李忠民 등 34명이다. 『沂洛編芳』에는 崔門柱가 더해져 총 35명이다. (정우락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33) 조임도, 『간송집』, 『연보』, 「35년(1607, 선조40) 정미 선생 23세」에 상세히 나온다.

34) 용화산 아래 뱃놀이에 관해서는, 『낙동강과 문화어문학』(정우락 외, 역락, 2022)의 저서에서 손대현의 논의가 상세하고, 정우락은 대략적 기술을 하고, 김종구 역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재서술함.

35) 정경세, 『우복집 별집』 5, 「年譜」, “訪鳳陽江山, 在州東南三十里許洛江之濱, 江山絶勝, 先生愛之. 作別業常往來, 欲築精舍未果.”

36) 정경세, 『우복집 별집』 12, 「祭文[李堧]」

말년 들어 한 칸의 집 새로 짓고는	晩築一室
낙동강 가에서 숨어 살았지	有洛之涯
분수 가와 검호 가에 떨어져 살며	汾湖兩地
쪽배 한 척 마련해서 서로 오갔지	往來一舸
달을 낚는 낚시대를 드리웠었고	釣月之竿
빗속에서 도롱이를 입고 김맷지	耕雨之蓑 <sup>37)</sup>

정경세는 45세인 1607년(선조 40) 1월에 도남서원에서 배를 타고 봉양을 방문하고, 55세인 1617년(광해 9)에 봉양의 강과 산을 유람하였다. 이때는 정인홍 정과의 사간원 탄핵으로 해직되고 석방(54세, 1616)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다. 정경세는 봉양 주변의 산수를 사랑했으며 풍류 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사를 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는 고향 상주의 낙동강 인근에서 소요하면서 불안한 정국을 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출사와 은일을 번갈아 했기에 정경세는 더욱 낙동강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었다. (나)의 이전(1558-1648)<sup>38)</sup>의 「제문」이 이를 증명한다. 이전은 정경세보다 선배이면서, 그의 삶을 지켜봤기에 더욱 안타깝고, 낙동강 가에 사는 정경세를 잘 이해했을 것이다.

(다)는 이준(1560-1635)<sup>39)</sup>의 「제문」이다. 이준은 이전의 동생이다. 이준이 정경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계기는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이 이황과 이이를 비난하자, 그에 맞서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일이다. 정경세는 검호에서 뱃놀이를 하며 달을 감상하기도 했다. 낙동강 가에서 오가면서 뱃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며, 김을 매는 모습은 강호의 지극한 풍류인 것이다.

37) 정경세, 『우복집 별집』 12, 「祭文[李竣]」

38) 1616년(광해 8)에 삭직 석방된 후, 이전에게 가서 대화를 감상하며, 「분매가 활짝 피었기에 여러 벗들과 함께 가서 감상하다.[盆梅盛開與諸友往賞]」와 「觀梅酬唱序」의 시를 짓기도 한다.

39) 이준은 정경세와 함께 서에 류성룡의 학문을 이어받아 학계에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경세는 1626년 4월에 한강에 사는 장현광을 방문한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기도 한다. 한강에 사는 장현광과 뱃놀이를 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강가에 사는 장현광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세의 소소한 뱃놀이는 이준에 의해 문화로 형성된다. 즉 상주 낙동강에서 일어난 뱃놀이 및 시회는 이준 등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 시회는 1607년부터 1778년까지 171년 동안 총 8회 시행되고 있었다. 이 시회의 기록이 『임술범월록(壬戌泛月錄)』이다.

정구, 장현광, 정경세는 공자의 기상을 함양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즉 육기의 고사와 뱃놀이를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들은 동인과 물가에 노닐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강에서 노닐며 달구경도 하며 시를 읊조리기도 했다. 공자와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대에서 바람을 쐬는 기상과 뱃놀이 문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동강 상 중 하류를 오르고 내리며, 당대 동인들과 함께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선비들 또한 뱃놀이를 즐기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들의 뱃놀이는 그 주변의 동인과 특색에 맞게 후인들에게 전승되고 있었다.

### 3.2. 은일 지향과 도학 함양

낙동강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호와 영남, 영남의 좌, 우가 소통되고 있었다. 소통이 부재할 경우, 사회 감성이 발생된다. 영남 사림과의 성장과 낙동강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영남 사림과의 영수 김종직은 여기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다.<sup>40)</sup> 그 이전 낙동강 인근에 야은 길재의 은일처가 있었고, 그

40)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를 참조하여 재서술. 정우락은 여기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 “낙동강은 뱃길로 영남의 물자 조달로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김종직은 관수루에서 본, 官船들은 천만 량의 남쪽 백성들에게 가렴주구한 것이라 비판하며, <낙동요>를 창작하고 있다.” 정우락은 『세종실록』의 기록과 尹鉉

이후 한훤당 김굉필의 은일처<sup>41)</sup>가 존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16-17세기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과 조선의 정국이 점차 붕당으로 이어지는 불안한 시대이었다. 이로 인해 영남의 선비들은 원활한 출사를 하지 못했다. 출사를 하더라도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퇴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은일을 하여, 학문 탐구와 성정 함양을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정구와 장현광 그리고 정경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영남 남인이 그러했지만, 학문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가) 대니산이 높다높고	戴尼崇崇
낙동강은 넘실넘실	清洛沄沄
그 가운데 서원 있어	中有精廬
사당 모습 엄숙하네	廟貌攸尊
지난날의 쌍계 터는	昔日雙溪
시끄러운 저잣거리	城市湫喧
여기 옮겨 터잡은 곳	茲焉移卜
은거지와 가깝다네	密邇丘園 <sup>42)</sup>

(나) 선생은 만년에 낙동강 가 노곡 마을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스스로 노곡노인이라 불렀다. 그곳에서 산 지 몇 해 뒤에 화재를 당하여 가옥과 서책이 모두 재가 되어 버렸는데, 선생이 저술한 문자와 편지 등이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 마침내 사수 들녘으로 살터를 옮겼는데, 이곳은 평야가 널리 펼쳐져 있고 못 산이 사방을 둘러 에워쌌으며 금호 일대가 눈앞에 가로 놓여

(1514-1578)의 <嶺南歎>(『菊磻集』 권中)을 가져와 김종직의 사회감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즉, 낙동강은 서울과 지방 그리고 관리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며, 결국 경제적 및 신분적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41) 吉再는 금오산에 은거하며, 강안의 독자적인 사립과 도맥을 형성한다. 이후 金叔滋, 金宗直에게 이어져, 대구 달성 金宏弼에게 도통을 전하게 된다.(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본 논의의 인물들은 낙동강 강안의 이들 도맥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정경세는 퇴계로 이어진 도맥을 자신이 이어가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42) 정구, 『한강집』 11, 「道東書院에 한훤당 김 선생을 봉안하는 글」

있다. 선생은 그 이름을 사랑하여 - 신안 서쪽에는 이천이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달성 북쪽에는 사수가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옛날 어떤 사람이 성산 향교의 누각에 시를 쓰기를, “섬돌 아래 이천은 사수와 잇닿았네.[階下伊川連泗水]” 하였다. - 마침내 늙은 뒤 물러나 은거할 거처로 정하고 집을 지어 살면서 그 집의 편액을 사양정사라 하였다.<sup>43)</sup>

(가)는 정구의 축문,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 선생을 봉안하는 글」이다. 한훤당 김굉필은 서울 태생이었지만, 19세인 1472년(성종 3)부터 37세까지 처가가 있는 합천군 야로현에 살았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4년을 살다, 합천과 인접한 현풍현에 내려와 살았다. 도동서원은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서원이다.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05년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창건했다. 이때 사액을 받고 위판을 봉안하는 의식을 행했다. 정구는 1607년(선조 40) 65세에 이 글을 지었다. 또 축문, 「한훤당 김 선생 사당에 고한 봉안문 본 고을 수령을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의 글도 있다.

정구는 경상도 현풍현의 쌍계 지역은 속세의 저자거리라서,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하기가 적당치 않다고 보았다. 대니산은 현풍면과 구지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낙동강은 대니산의 북, 서, 남쪽을 둘러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선경을 자랑한다. 원래 금사산(金寺山)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김굉필이 이 산에 살면서 니구산(尼丘山), 즉 공자의 어머니 안씨가 이 산에 기도하여 공자를 낳았다는 기리기 위해 대니산(戴尼山)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대니산과 낙동강의 정기로 가득한 도동서원은 김굉필의 도학정신

43) 정구, 『한강언행록』 3, 「類編」 「雜記」 [李籥 등], “先生晩年, 卜築洛江之上蘆谷之村, 自號蘆谷老人, 居數歲, 遭回祿之災, 家舍書冊, 盡為灰燼, 先生所著文字筆札, 並無遺焉. 遂移卜於泗水之原, 平野逶迤, 羣山周圍, 琴湖一帶, 攢截眼前, 先生愛其名, 新安之西, 有伊川, 東流入于洛江, 達城之北, 有泗水, 西流會于洛江, 昔有人題星山校樓曰, 階下伊川連泗水, 遂定菟裘之計, 築室以居, 而扁其室, 曰, 泗陽精舍.”



의 위상을 높혀 주고, 널리 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후대의 선비들도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

(나)는 정구의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도 낙동강 가 노곡에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하며 학문에 침잠했다. 정인홍과의 갈등과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낙동강 가에 은일했던 것이다. 아쉽게 불이 나서 학문적 성과의 저술들이 불타버렸다. 그렇지만 정구는 낙동강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이천과 사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그 근원을 아름답게 여겨 사양정사를 짓게 된다. 사수는 공자의 강학처이었고, 정호와 정이가 제자를 기른 곳이 이수와 낙수이었다. 주자는 이러한 학문을 이어받아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러므로 정구는 만년에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했던 곳이 사양정사인 것이다. 이수광이 쓴 정구 만장 가운데, ‘낙동강 외진 곳 늙어가면서, 도리 깨쳐 몸 비록 평온했으나, 나이 많아 앓는 병 낫지 않았네’<sup>44)</sup>가 이를 증명한다.

(가) 모두 올바른 학문을 우러러	咸仰正學
더욱 오래수록 더욱 빛나네	愈久彌光
송림의 언덕은	松林之原
낙동강이 산을 감고 도네	洛流縈岡
유택이 이 곳에 있으니	幽宅在是
비석을 새겨 무궁한 후세에 남기네	鐫賁無疆 <sup>45)</sup>

(나) 내가 들으니, 중하의 절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지주중류라는 네 글자를 백이, 숙제의 사당 아래 흐르는 물가에 우뚝이 솟아 있는 돌에 크게 새겼는데, 우리 동방의 절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그 네 글자를 모사하여 선생의 묘소 아래인 낙동강의 강안에 비석을 세우고 이것을 새겨 걸었다 한다. 이는 진실로 천하의 큰 한계를 세우고 만세의 강상을 보전한 것이 중하에는

44) 정구, 『한강집』 「輓章 또 [이수광]」 “白首洛東偏, 理勝身雖旺, 年高病未痊.”

45) 장현광, 『여헌집』 12, 「寒暄堂 金先生的 神道碑銘 并序」

백이이고 우리 동방에는 선생이기 때문이다.<sup>46)</sup>

(다) 한 바위가 우뚝이 솟아	有巖斗起
낙동강 가에 있었습니다	于洛之干
그 이름은 부지암인데	不知其名
한가로이 은거하시기에 적당하였으며	考槃之寬
줄줄 흐르는 샘물은	泌之洋洋
굶주림을 달래며 즐기실 수 있었습니다	可以樂飢
좌우에는 도서를 쌓아놓고	左圖右書
굽어보아 읽고 우러러 생각하셨습니다	俯讀仰思
천년 전의 일을 묵묵히 생각하시니	千載默契
선천과 후천의 학문이었습니다	先天後天
국그릇을 대하든 담장을 대하든 주공과 공자였고	羹牆周孔
자나 깨나 복희와 문왕을 생각하셨습니다	寤寐羲文 <sup>47)</sup>

(가)는 장현광의 「한훤당 김선생의 신도비명 병서」이다. 장현광 역시 낙동강을 김굉필과 연관시켜 논하고 있다. 그는 ‘회용의 소학이, 성인이 되는 기본이네, 광풍제월의 기상이 모두 이 책에 있다 하니, 스승은 나를 속이지 않았네.’<sup>48)</sup>라고 하면서, 김굉필이 낙동강 가에서 도학을 실천하는 스승으로 보고 있다. 김굉필은 주돈이, 정호·정이 등 송나라 유현을 통해 공맹에게 올라가는 학문을 했다고 칭송한다. 장현광은 낙동강 가는 현자가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나)의 「야은선생문집 발문」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 장현광은 낙동강이 후인들이 야은 길재의 도학정신을 본받기

46) 장현광, 『여현집』 10, 「冶隱先生文集」, “聞中夏之慕節義者, 刻砥柱中流四大字於夷齊廟之下抗流之石 而又吾東之慕節義者, 募其四字, 立碣刻揭于先生墓下洛江之岸, 則誠以立天下之大閑, 存萬世之綱常者, 中夏而伯夷, 我東而先生也.”

47) 장현광, 『여현숙집』 10, 「士林의 제문-문인 金光繼」

48) 장현광, 『여현집』 12, 「寒暄堂 金先生의 神道碑銘 并序」, “晦翁有書, 作聖之基, 光風霽月, 師不我欺.”

위해 그 비를 묘소 아래 강안에 세운 것이다. 장현광은 “금오산은 아득히 높고, 낙동강은 유유히 흐르니, 도가 마땅히 함께 높고, 가르침이 마땅히 함께 흐를 것입니다.”<sup>49)</sup>라고 하면서 길재의 도학이 금오산과 낙동강처럼 높고 멀리 전해지길 기원하고 있다. 그는 「오산서원의 사우를 증진한 상량문」에서도 낙동강처럼 길게 이어지길 기원했다. 장현광은 낙동강의 문화가 도학을 기리고, 함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현광이 낙동강에서 문화를 형성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의 「사람의 제문-문인 김광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낙동강가에 부지암정사를 지어 은거하며, 수많은 책을 보며 학문을 탐구하고, 성인의 기상을 함양하고자 했다. 장현광을 따르는 제자 및 동류는 아예 그의 부지암정사 인근 낙동강가에 작은 재를 지어, 배로 왕래하며 교유하며 학문을 배우고 도학 함양을 함께하고 있었다. 세마 정군섭과 노생 경임이 그러했다. 장현광은 이들의 죽음을 더욱 안타까워하며 제문들<sup>50)</sup>을 짓고 있었다.

(가) 옛날에 장정수가 의춘에 염계와 두 정씨의 사당을 세웠는데, 주자께서 기문을 지어 그 일을 칭송하였습니다. 무릇 염계와 두 정씨는 그곳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오히려 사당을 세워서 향사한 것은 참으로 지난날의 성현들을 위하고 끊어진 학문을 이었으며 후세의 학자들을 위하여 사람의 법도

49) 장현광, 『여헌집』 11, 「吳山書院을 重建하고 奉安할 때의 축문」, “烏巖崇崇, 洛水悠悠, 道宜共隆, 教宜同流.”

50) 장현광, 『여헌집』 11, 「洗馬 鄭君燮에 대한 제문」, “어찌 다만 죽은 벗을 슬퍼하여 통곡하는 몇몇한 정일 뿐이겠는가, 군은 평소 항상 함께 거처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영구히 서로 따를 계책을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낙동강가에 땅을 사고, 모재 몇 칸을 건축하여, 반드시 나의 부지암에 있는 서재와 서로 마주보게 하고, 조그만 배로 왕래하여,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 한 것이, 그 뜻이었는데.”(亦豈但哭友之常情而已哉, 君常以同處之不能常爲恨, 欲以爲永久相從之計, 則買地於洛江之濱, 構一茅齋數間, 必與吾不知巖齋相對, 片舟往來, 不相離遠者其志也.)

장현광, 『여헌집』 11, 「盧擄 更任 에 대한 제문」, “군은 모로촌에 새 터를 잡으니, 나의 부지암의 서재와 서로 바라다 보였으며, 군은 洛江 강가의 작은 정자를 지으니, 나의 원당의 寓居와 서로 마주하였다.”(君營慕魯村之新卜, 與我不知巖之齋相望矣, 君構洛江岸之小亭, 與吾元堂之寓相對矣.)

를 세웠으니 그 덕과 그 공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고장은 영남의 위쪽에 있으면서 영남의 거읍이 되는데, 영남의 유현들을 합사하여 영남의 진신들을 이끌기에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에 드디어 서로 더불어서 재목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낙동강가에 터를 잡아서 7월에 일을 시작하여 12월 12일에 상량식을 올렸습니다. 묘는 모두 3칸이고, 당은 9칸이며, 이름을 도남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재사재사와 주고(廚庫)는 모두 힘이 달려서 미처 지을 겨를이 없었습니다.<sup>51)</sup>

(나) 안개 속에 묻혀 점점 영락해 갔네	零落煙霞
삶 즐기며 늘그막을 보낼 언덕이	樂哉斯丘
낙동강가 우복산의 기슭에 있네	有洛之涯
드디어 와 새로이 집 엮어 지으니	聿來新築
선생께서 살 곳 이에 얻게 되었네	我所爰得
강호에다 자취 숨겨 숨어 지내며	寓跡江湖 <sup>52)</sup>

(다) 지혜 깊어 천기 묘함 드러내었네	知妙發天機
오랫동안 낙동강가 숨어 살면서	久矣常居洛
기수에서 목욕하듯 초연하였네	超然似浴沂
도와 덕을 속에 감춰 검허하였고	謙虛藏道德 <sup>53)</sup>

정경세는 낙동강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도남서원의 창건이다. 그는, “또 일찍이 포은 정몽주, 한훤 김굉필, 일두 정여창, 회재 이언적, 도산 이황 등 다섯 선생들이 전후로 영남 지방 수백 리 안에서 출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상주가 또 영남의 위쪽에 있는 하나의 큰 도

51) 정경세, 『우복집』 9, 「李漢陰 德馨에게 보낸 편지」, “昔張定叟立濂溪兩程之祠於宜春, 而朱子作記以美其事, 夫以濂溪兩程非其土之人, 而猶且立祠以祀之者, 誠以為往聖繼絕學, 為後世立人極, 其德其功 為不可忘也. 況以吾鄉居嶺之上遊, 為嶺之巨邑, 而合祀嶺之儒賢, 以表率嶺之搢紳, 宜無善於此者, 遂相與鳩材合力, 選地于洛水之上, 以七月始事, 十二月上二日上樑, 廟凡三間, 堂凡五間, 號曰道南書院 其餘齋舍廚庫, 則皆以力綿未遑焉.”

52) 정경세, 『우복집 별집』 12, 「또 [문하생 康喬年]」

53) 정경세, 『우복집 별집』 12, 「또 [李元圭]」

회지라고 하여, 드디어 낙동강 가에 서원을 세우고는 도남서원이라 불렀다. 그리고는 이 다섯 분의 선생을 나란히 향사하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도맥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sup>54)</sup>라고 하였다. 정경세는 상주에 공자, 주렴계, 정이·정호, 주자로부터 이어온 우리 오현의 도맥이 형성되길 바라며 낙동강 가에 도남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도남은 송 양시(楊時)가 정호(程顥)에게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호가 좌객들에게 ‘우리의 도가 남으로 가는군.’[吾道南矣]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sup>55)</sup> (가)는 도남서원 건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음 이덕형에게 도남서원 사액을 정중히 청하고 승낙을 받기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후, 1616년(광해군 8) 노수신·류성룡, 1635년(인조 13) 정경세를 추가 배향하고, 1677년(숙종 3) ‘도남(道南)’이라고 사액서원으로 승격하게 된다. 정경세는 낙동강가의 도남서원을 도학을 함양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가)는 전체를 위한 경우이고, (나)와 (다)는 정경세 자신을 위한 경우이다. 정경세는 홀로 은일을 하여, 도학을 함양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쓴, 「제문[문하생 강교년]」이다. 정경세는 낙동강가 우복산의 기슭에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다) 역시 제자가 쓴 제문, 「또 [이원규]」이다. 제자의 모습에 비친 정경세의 모습은 은일을 하여 산수를 벗하며, 공자의 기상을 함양하고, 도와 덕을 겸비해 겸손한 사표가 된 것이다. 낙동강 가는 정경세의 은일처, 도학처<sup>56)</sup>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낙동강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54) 정경세, 『우복집 별집』 9, 「贈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行 正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 愚伏 鄭先生の 墓表[權愈], “又嘗謂圃隱, 寒暄, 一蠹, 晦齋, 陶山五先生, 前後生於嶺南數百里之內, 尙又嶺之上流一都會也, 遂建書院於洛濱, 號道南, 并享五先生, 使學者知道脈之在此云.”

55) 『宋史』 428, 「楊時列傳」, “程顥與弟頤, 講孔孟絕學于熙豐之際, 河洛之士, 翕然, 師之時調官不赴, 以師禮見顥, 於頤昌相得甚權其歸也. 顥目送之曰, 吾道南矣.” 참조.

56) 정경세의 은일과 도학은 그의 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난 시,

속리산 동편에 산이 향아리 같아	俗離之東山似甕
예로부터 그 속에 우복동이 있다고 했네	古稱中藏牛腹洞
산봉우리 시냇물이 천 겹 백 겹 둘러싸서	峯回礪抱千百曲
여민 옷깃 겹친 주름 터진 곳이 없는 듯하네	衽交褶疊無綻縫
나는 시내 성난 폭포 시끄러운데	飛泉怒瀑恣喧騰
다래넝쿨과 가시나무가 열기설기 길을 막고 있네	壽藤亂刺相牽控
동문은 대롱 같은 작은 구멍 하나	洞門一竇小如管
송아지가 배를 깔아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네	牛子腹地纔入峒
막 들어서면 가파른 절벽이 오히려 어둑하지만	始入峭壁猶昏黑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해와 달이 그 빛을 비추네	稍深日月舒光色 <sup>57)</sup>

위의 시는 정약용의 「우복동가」이다. 그는 현실 속의 이상향으로 간주되는 우복동을 부정하기 위해 이 시를 지었지만<sup>58)</sup>, 당대 정경세가 은일하여 도학을 함양하기에는 넉넉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낙동강 가, 시내와 산기슭에 둘러싸여 속세와 인연이 끊어진 듯한 곳에서 성정 함양과 학문 탐구를 했던 것이다. 정경세가 낙동강 상류에서 문화를 만들었다면, 장현광과 정구는 낙동강 중류에서 자신만의 학문과 실천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길재와 김종직, 김굉필이 지향한 학문 및 공간 그리고 도학성의 영향이 시대했다. 즉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당대 사림의 구심점<sup>59)</sup>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낙동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처사

---

“고졸한 성질은 세속의 좋아함과 어긋나, 잊드려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네, 이 궁벽한 곳에 은거해 사니, 바람과 냇물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씻네, 안개와 구름 서로 어울려 아름답고, 거문고와 서책 또한 고요하고 편안하네, 일찍이 원하던 것 다행히 어긋남이 없으니, 늘그막을 애오라지 연장할 수 있겠네.”(정경세, 『우복집』 1, 「次寄題草堂詩韻」, “拙性乖俗好, 潛伏理宜然, 考槃此僻境, 洗心聆風泉, 煙雲互明媚, 琴書亦靜便, 夙願幸無違, 顏齡聊可延.”)에서 그가 낙동강 인근에서 은일해 성정을 함양 및 수양하며, 도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57) 정약용, 『다산시문집』 5, 「牛腹洞歌」

58)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

59) 이러한 내용은 강안학에 관한 정우락의 논의(『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에 동참하며, 본고는 구체적인 실상과 그 문화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수행했다.

였다. 정구의 경우 그의 실용성이 허목에게 이어져, 근기 남인의 실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물론 대구지역의 서사원 등 문인에게 기친 영향도 지대하다. 장현광의 경우 정구와 관련된 여러 글과 성주의 여러 문인들과 자연스러운 교유가 일어났고, 한려학파를 형성 주변에 전개시키기도 한다. 이는 낙동강 가에서 일어난 도학이 실천되어, 그 강을 오르 내리며 도학<sup>60)</sup>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정구, 장현광, 정경세는 낙동강 가의 아름다운 산수 공간에 은일을 한다. 이들은 자신의 학문 탐구와 성정 함양뿐만 아니라, 그 명성으로 동인과 제자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아예 이들 가까이에 집을 마련해 항상 가까이에서 그들의 학문과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낙동강 가의 산수를 벗하며, 공자의 기상을 함양하고, 도와 덕을 겸비하고자 했다. 낙동강 가는 은일처, 도학처가 되어 동인 및 제자들과 함께 낙동강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도맥이 낙동강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후인들의 모범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다른 강에 비유를 하면, 더욱 정확하게 나타나고 각인되어져 가고 있다.

## 4. 결론

정구, 장현광, 정경세의 낙동강문화는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을 함의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구도(求道)와 풍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이 두 문화가 혼용되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60) 이에 관해 정우락은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에서 이상정의 「沂洛編芳序」, 趙天經의 「洛江泛月續遊詩序」, 정사현, 정경세, 尹拯, 장현광 등 예를 들어 낙동강과 도학 정신의 관계 및 계승을 잘 표명하고 있다. 본 논의는 그 구체적 실상을 한강, 여헌, 우복의 경우를 통해, 그 문학을 분석해 문화사의 한 단면을 고찰한 것이다.

이들은 구도를 지향하며,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는 습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통을 중요시하여 길재, 김굉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낙동강을 통해 도맥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풍류는 뱃놀이, 소요 등으로 문화를 형성했다. 산수의 아름다운 선경을 혼자 독락하기도 했지만, 동인과 함께 즐기기도 했다.

둘째, 좁게는 학단을 형성하고 넓게는 도맥[학파]을 형성해 전승하고 있었다. 정구는 대구 인근에서 장현광은 구미에서 정경세는 상주의 낙동강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정구와 장현광은 한려학파를 형성한 인물이고 정경세는 퇴계와 서애학맥을 잘 계승하고 후손인 입재 정종로에게 가학을 전수하기도 한다. 특히 정경세는 상주지역에 퇴계학을 수용하고 정착시키고자 했다. 낙동강의 도남서원 건립이 바로 그러하다.

앞으로 낙동강문화에 관한 연구과제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낙동강의 문헌인식과 문화연구가 필요하다. 대구 중심의 산수와 관련된 유산, 선유, 구곡, 누정 문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낙동강 중류의 낙동강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지역 인근은 도학자와 명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위를 넓혀 낙동강 상, 중, 하류와 인접한 산수문화를 비교 연구해야 한다. 안동권, 대구권, 부산권의 낙동강문화는 역사와 전통을 달리해 다른 문화가 존재할 것이다. 대구만 하더라도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즉 구곡문화와 누정문화가 낙동강과 혼용되어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부터 근대전환기까지 시대별 연구가 필요하다. 고려는 기록이 부족하기에 문헌상 연구는 힘들더라도, 기존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쟁과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즈음의 낙동강문화는 평범한 일상과 다르게 체험되고 인식된다. 그 접점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갈래와 교섭연구[한문학, 민요, 고전소설, 현대문학, 문화예술 전분야]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문학 분야에서도 해야



할 연구가 많지만, 다른 갈래와 함께 살펴봐야 제대로 된 낙동강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향량 관련 설화[산유화가 등]가 선산 인근 낙동강에 존재하고, 정경세의 「쌍절비명(雙節碑銘)」도 여성의 절의와 관련 있다. 다양한 분야에 투영된 낙동강문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이상정, 『沂洛編芳』  
이현일, 『葛庵集』  
장현광, 『여헌속집』  
장현광, 『여헌집』  
정 구, 『한강언행록』  
정 구, 『한강집 속집』  
정 구, 『한강집』  
정경세, 『우복집 별집』  
정경세, 『우복집』  
정약용, 『다산시문집』  
조임도, 『간송집』  
허 목, 『기언』  
『宋史』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김소연,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4, 한국문학회, 2020, 107-140쪽.

-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 學人을 중심으로-」, 『嶺南學』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41-98쪽.
- 정우락 · 백두현, 「문화어문학 :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정우락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
- 정우락, 「『봉산옥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한국고전문학과 문화어문학』, 역락, 2018.
- 정우락, 「강안학, 하나의 영남학을 위하여」, 경북대신문, 2008년 4월 7일자.
-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39-94쪽.
-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 52, 한국학문학회, 2014, 173-213쪽.
- 정우락, 「남명 조식의 ‘물’ 인식과 인문정신」, 『영남학』 2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165-202쪽.
- 정우락, 「동계 조형도 시에 나타난 ‘물’에 대하여」,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145-184쪽.
- 정우락, 「물의 철학, 물의 문화」, 『향토와 문화: 물』 74, 대구은행, 2015.
- 정우락,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45-78쪽.
- 정우락, 「이황과 조식의 문학적 상상력, 그 동이의 문제」, 『한국사상과문화』 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7-44쪽.
- 정우락, 「정몽주 시에 나타난 공간 상상력-물 이미지와 관련하여」, 『포은학연구』 16, 포은학회, 2015, 189-225쪽.
-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03-257쪽.

- 정우락, 「주자 무이구곡의 한국적 전개와 구곡원림의 인문학적 의미」,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구곡문화』, 울산대곡박물관, 2010.
- 정우락, 「한국문학에 나타난 물 이미지의 이항대립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4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1, 69-114쪽.
- 정우락, 「한국한문학의 지역 간 교섭과 문화의 역동적 생성: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韓國漢文學研究』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 정우락, 「형제 이직의 한시에 나타난 ‘물’에 관한 상상력」, 『동양한문학연구』 39, 동양한문학회, 2014, 317-352쪽.
- 정우락, 『모순의 힘: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역락, 2022.
- 추제협, 「‘한려학과’와 ‘여헌학」, 『한국학논집』 5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59-88쪽.
-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 郭再謙·徐思遠·孫處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231-271쪽.
- 홍원식 외, 『(조선 후기) ‘낙중학’의 전개와 ‘한려학과」,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8.
- 홍원식 외,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 홍원식 외,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 조선 중기의 ‘洛中學」,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 홍원식 외,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조선 중기의 ‘낙중학」,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 홍원식, 「영남 유학과 ‘낙중학」,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7-29쪽.

16th and 17th century scholars' culture of  
洛東江 and its meaning  
- Focusing on the literary works of  
Jeong Gu, Jang Hyeon-kwang, and Jeong Kyung-se -

Kim, Jong-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16th-17th century, 洛東江culture, Jeong Gu, Jang Hyeon-  
kwang, Jeong Gyeong-se, 船遊, Pungryu, 隱逸, 求道

For our Seon-hyeon, mountains and waters were a place of living, a place of study and style. Because the Nakdong River possesses water, the source of life, it has created various cultures. Through this river, exchanges, cooperation, and conflicts are being created from Gyeongsang Left and Right to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ming a culture. This discussion focuses on Jeonggu Han River, Hyeonkwang Yecheon, and Jeonggyeongse Woo Bok, who were activ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nd how they perceive the Nakdong River and create it as literature, examines the synchrony, and further examines the cultural phenomenon.

First, the perception of Nakdong River by Jeong Gu, Jang Hyeon-gwang, and Jeong Kyung-se was used as a space for play and entertainment, and they enjoyed the wind. They were enjoying the small pleasures of jogging along the 洛東江 family and enjoying the winds of the moon by boating on the moonlit night. In other words, he was cultivating the spirit of Confucius and enjoying the wind.

They spent time together at the water's edge, played boats, and created moon-watching and poetry. It can be seen that Confucius and Jeung-jeom bathe in the river, and get air in the radish belt, and the culture of boating and gis are actively appearing.

Second, he respected the Taoists of the previous generation, and was oriented toward 隱逸 and 求道. Nakdonggang worshiped Taoists such as Giljae, Kim Gongpil, and the Toegye School. They were quietly working on the banks of the Nakdong River, oriented toward the path of morality and concentrating on learning and cultivating character. His disciple and fellow man built a house on the banks of the Nakdong River, traveling and interacting, learning science, and cultivating the Tao together. They tried to cultivate the spirit of Confucius, and to combine the Dao and the virtue. The Nakdonggang River became a place of solace and education, forming a Nakdonggang culture with the disciples.

Jeong-gu, Jang Hyeon-gwang, and Jeong Gyeong-se formed a culture of 求道 and Pungryu around the Nakdong River. The two cultures blended and appeared repeatedly, creating a fusion of play and composition. He thought that the Nakdong River flows through the river, and formed a culture such as literature and literature. These were passed down by forming a narrow school, and broadly forming a domaek (school). In other word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growth of the Yeongnam Sarim group at the time. Although the regions were different, Jeong-gu was near Daegu, Jang Hyeon-gwang was Gumi, and Jeong Gyeong-se was training students along the Nakdong River in Sangju, and he continued his studies.

(2022.04.30. 접수 : 2022.08.22. 수정 : 2022.09.05. 채택)

**김종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17세기 영남지역 산수유기 연구」로 박사(2019)를 졸업하였다.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 및 수석연구원(2019-2021)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敬堂日記에 나타난 꿈의 양상과 그 의미」와 『합천지역의 남명학과 - 남명학과 의 지역적 전개 ①』(공저)가 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이다.

E-mail: piny0928@hanmail.net